

시설양묘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한국양묘협회 경북도지부
회원 정민수

1. 발표배경

- 우리나라 양묘사업이 일반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으며
- 더구나 감독관청인 산림청에서 간이온실 시설비 지원과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정 시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양묘토양개량사업 지원은 물론 해외 선진양묘기술연수 경비까지 지원해 주심으로
- 이제 저희 협회회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양묘사업이 사양사업이라고 의기소침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면된다는 의욕과 용기가 넘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농사 열심히 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오늘 제가 발표할 과제를 말씀드리면 교재에서 보듯이 금년에 양묘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 실패한 사례를 발표하므로서 우리회원들께서 앞으로 더이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또한 지난 9월 임업연구원 종묘연구실에서는 금년 봄 비닐하우스를 짓고 용기묘를 생산중에 있는 16명 회원을 대상으로 용기묘 양묘성적을 조사한 결과 제가 거꾸로 1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좀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아쉬운 작업종별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

2. 시설양묘 작업항목별 교훈

가. 간이온실(비닐하우스) 시공이 너무 늦었다.

- 당초 간이온실은 설계와 시공을 2월말까지 계획하고 종자파종을 3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실제 간이온실 건축자재규격이 주문생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이 늦은 3월 30일에 시설을 완료함에 따라
- 파종, 이식작업들이 순연되는 문제를 가져왔음.

나. 우량종자를 확보치 못하였다.

- 표고자목 수급부족으로 상수리 성목이 많이 별채되고 있는데다, 2001년도 상수리 결실이 좋지 않아 종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 종자확보시기를 일실하여 2002년도 초에 목집에서 목제조용으로 가지고 있는 상수리 종자를 확보한 결과 발아율이 떨어지고 썩은 종자가 섞여져 있어 문제가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정부에서 좋은 종자를 공급해 주신다니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함

다. 비료주기, 관수요령 등 용기묘 기술교육이 미흡했다.

- 시설양묘가 금년 처음으로 시도되어 전회원이 하우스 건축, 관수시설, 용기와 상토확보 등 각 부분별로 전문가를 선정, 의욕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 양묘기술 지도받을 기회가 적었으며 특히 현장실습교육이 단 1회(충북 진천)에 그쳐
-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비닐하우스가 경북 봉화 오지에 있고 외부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아 성공적인 농사를 짓지 못하였음

라. 간이온실 지원회원에게 관정시설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 간이온실 양묘사업은 원활한 급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 경북지부의 경우 당초 양사업이 각각 다른 회원에게 지원계획되었다가 뒤늦게 연계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의 경우 5월 중순에 관정시설을 완비하였으며 또한 전기

인입공사를 뒤늦게 시공함으로써 관수작업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바 있었으므로

○ 2003년도에는 간이온실과 관정시설사업이 동일회원에게 지원되도록해야 하겠음.

3. 금년 시설양묘의 성적은 위와 같이 낙제점수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기필코 성공할 계획이다.

○ 저는 금년에 간이온실(비닐하우스) 250평을 시설하고

○ 총 55,000월에 상수리 종자를 파종하여 나뉘대로 농사를 지은결과

- 현재 산림청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규격에 합격한 묘목 (간장 15cm, 근원경 2.3mm)은 20,000본이며

- 나머지 35,000월중 발아가 되지 않은 것은 30,000개, 5,000본은 규격미달묘로 판정되어

○ 종자발아율이 45%에 그쳤고 규격묘생산 합격률이 36%에 불과한 실패한 농사를 지었음을 보고드리면서

○ 금년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필코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